

17. 토빗기

토빗기는 토빗과 그의 아들 토비아 그리고 며느리가 되는 사라 이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라는 공통 신학 주제를 드러내는 종교 소설입니다.

토빗은 납탈리 지파의 후손으로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 시대에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토빗은 평생토록 고향에 있을 때나 유배를 갔을 때나 한결같이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었고 친족과 동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임금이 죽인 동족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는 자선을 베풀 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도피 생활을 하며 고난을 겪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오순절 축제 기간 중에 살해되어 버려진 동족의 시신을 매장해 주고 잠이 든 날 밤에 우연한 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의롭게 사는 데도 계속해서 불운을 겪는 이 토빗의 기도와 멀리 메디아의 엑바타나에서 일곱 번이나 결혼하고도 악귀 때문에 첫날밤을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죽어 청상과부가 된 순결한 여인 사라의 기도가 한날 주님께 다닙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파엘 대천사를 파견하여, 토빗의 아들 토비아와 사라를 결혼시키고 마술적인 방법으로 악귀를 물리치며 아버지 토빗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토빗은 시력을 회복한 이후 내내 자선을 베풀었고, 늘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미찬양하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토빗기가 주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은 하느님이 주관하시고 또 삶의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은 당신 구원의 위업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율법과 조상들의 종교 전통에 충실한 이들과 무죄한 이들을 시련과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느님의 총애를 얻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분이 눈여겨보시는 기도와 자선임을 전합니다.